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음 습득에 있어서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김주연*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분석 결과
- V.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생성하는 유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음 습득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탄설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탄설음으로만 실현되는 유음을 대상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 모어의 요소가 목표 언어의 습득을 방해하는 침입적 간섭보다는 학습자의 모어에 없는 요소가 목표 언어의 습득을 방해하는 배제적 간섭이 더 발생하여 탄설음보다는 설측음의 습득이 더 어려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 학습자의 유음 습득 과정에 나타난 중간언어를 통하여 학습자가 목표 언어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주제어 : 유음(liquid),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Japanese learners of Korean), 배제적 간섭 (preclusive interference), 침입적 간섭(intrusive interference), 대조분석 가설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중간언어(interlanguage)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생성하는 유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음 습득 양상을 고찰하고, 한국어 발음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하세가와유키코(1997:162)는 한국어는 일본인에게 모어와 문법 및 어휘적인 공통점이 많고 문화적인 배경도 비슷하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말임에 틀림없지만 입문단계인 ‘글자와 발음’만큼은 그렇지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를 일본인에게 한글은 낯선 기호일 뿐만 아니라 일본 글자인 가나(假名)로도 로마자로도 소리를 옮겨 쓰기가 어려운데다 그 발음이 일본어보다 훨씬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한 나머지 발음이 약간 어색하거나 정확하지 않아도 상황에 의존하여 통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과 학습자들도 그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이효숙(2008:185)에서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속도에 있어서 일본인 학습자들이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어순이나 어미 활용, 조사 사용, 높임법의 발달 그리고 한자어 사용 등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어 학습에 좋은 여건을 가진 일본인 학습자가 ‘발음’에 있어서는 다른 언어권보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서 일본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한국어와 판이할 뿐 아니라 전체 음소의 수 적어서 한국어 발음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발음은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외국어의 영역으로 학습자의 외국어 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때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최근의 외국어 교육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양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의사 전달을 전제로 한 유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 구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효숙(2008:180)에서도 정확한 발음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올바르게 체계적인 발음교육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초급 단계에서의 발음교육이 자 모음의 음가를 익히는 것에서 시작하여 연음현상을 비롯한 복잡한 음운 규칙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습을 시작할 때와 다르게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부정확한 자신의 발음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에는 포기하는 학습자가 증가하므로 발음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효숙(2008:209)에서는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무조건 따라 하기의 반복 학습이 아니라 교사가 음성학적 지식과 한국어 음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춰 학습자가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알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교사가 학습자 모어와 한국어 음운체계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여 지도할 때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자 모어에 대한 음운·음성학적 지식의 유용성은 대조분석 가설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대조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CAH)은 제2언어 학습에서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을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음 습득 과정을 학습자 모어의 음운 체계와의 대조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권 학습자가 보이는 학습 수준에 따른 유음 실현 양상을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일본어권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효과적인 한국어의 발음 교수·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I.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일본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모음과 자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유음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 가운데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세가와유키코(1997)는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을 비교한 후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입문단계의 지도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발음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발음상 일본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① ‘ㄱ’와 ‘고’, ‘ㄴ’와 ‘ㄴ’의 구별, ② 평음-격음-농음의 개별 발음 및 구별, ③ 종성 ‘ㄴ, ㅁ, ㅇ(특히 ㄴ과 ㅇ)’, ‘ㄱ, ㄷ, ㅂ’의 개별 발음 및 구별, ④ 종성 ‘ㄹ’의 발음이라고 제시하였다. 정확한 발음을 학습자가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의 개요와 기본모음-기본자음(초성)-‘ㄱ, ㄷ, ㅂ, ㅅ’의 유성음화와 파생 모음-파생자음(초성)-종성의 순서로 수업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대환(2003)은 일본 대학의 한국어 수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친근감 혹은 유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문자보다는 소리부터 모음과 자음, 이중모

음과 받침 발음이라는 순서로 제시하여 6회에 걸쳐 마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음 연습으로 단순한 따라 하기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발음이 맞고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음음성학적 지식을 빌어 조음점과 조음방법을 넣어서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효숙(2008)은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인 초급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발음 교육에 대하여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 요구 조사에 의하면 배우고 싶은 발음 항목으로 ①평음, 격음, 경음 ②겹받침 ③개별모음, 자음 ④음운변동 ⑤연음 ⑥ㄴ, ㄹ, ㅇ발음 ⑦기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기반하여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전반에 대해 논하면서, 모음과 자음, 받침 발음에 이어 연음화, 자음 동화, 경음화, 격음화, 구개음화에 해당되는 각각의 음운 변동 현상을 도입-제시(원리 설명)-연습-활용-마무리 단계에 따라 10회에 걸쳐 지도할 수 있는 발음 지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화진·하호빈(2019)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비음동화, 경음화, ‘ㄹ’의 비음화, 유음화, 유기음화라는 5개의 음운 변동 현상의 실현 양상을 5개월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친 실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차 실험에서는 음운 규칙별로 적용되지 않은 비율이 유음화 85%, 유기음화 80%, ‘ㄹ’의 비음화 77%, 비음동화 56.6%, 경음화 28.3%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발음의 특성, 즉 주어진 단어의 자모 하나하나를 정확히 발음하고자 하는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음운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별 음소가 기저형 그대로 실현되는 현상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음운 규칙별로 적용되지 않은 비율이 ‘ㄹ’의 비음화 76%, 유음화 62.5%, 유기음화 53.3%, 비음동화 36.6%, 경음화 13.3%로 나타났다. 이는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못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급 단계를 벗어난 학습자들의 유창성이 고르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일본인 학습자의 유음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수준에 따른 유음 발음을 다룬 연구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어 모어화자의 청각적인 판단에 의한 학습자의 발음 숙달도에 관한 연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본어권 학습자의 유음의 음향음성학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른 습득 양상을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유음

이진호(2014:62-63)에 의하면 유음에 속하는 자음은 음성적 특징에 따라 설측음, 탄설음, 진동음으로 구분되는데 설측음은 조음체가 조음점의 중앙 부분을 막고 있어서 공기가 혀의 한쪽 또는 양쪽 측면으로 흘러가도록 발음하고, 탄설음은 조음체를 조음점에 살짝 대었다가 떼면서 발음하고, 진동음은 조음체를 조음점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대었다가 떼면서 발음하는 소리라고 한다. 한국어의 유음은 ‘ㄹ’ 하나밖에 없으나 ‘ㄹ’의 변이음으로 설측음과 탄설음이 있고, 다른 자음에 비해서 자음적인 속성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음할 때 공기의 방해가 적게 일어나므로 구체적인 조음 방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신지영(2014:250-251)에 의하면 한국어의 유음은 음성적 환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음성형, 즉 변이음으로 나타나는데 어두 초성과 어중 초성 중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한 경우에는 탄설음으로 실현되고, 그 나머지 환경에서는 설측음으로 실현된다고 한다.

박창원 외(2004:82)에 의하면 일본어의 유음은 ‘ら’ 하나밖에 없으며 혀

끝이 경구개를 향해서 약간 제껴진 모양으로 치경의 후부에 가볍게 닿아서 치경을 문지르듯이 가볍게 밀면서 내는 탄설음이라고 한다. 혀끝이 자연스런 모양으로 치경에 닿아서 일단 폐쇄를 형성하고 치경에서 떨어질 때 폐쇄를 터뜨려서 파열음을 내는 것으로 한국어의 어두 초성과 어중 초성 중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실현되는 탄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대조분석 가설

강현화 외(2002:4-5)에 의하면 대조분석은 두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의 예측과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언어학습의 전이는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 무전이의 세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 전이인 유용(facilitation)은 두 학습 과업이 같을 때 반응이 나타나며, 부정적 전이인 간섭(interference)은 두 학습이 연관은 있으나 다를 때 일어나며, 무전이는 두 학습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대조분석 가설에서는 학습의 장애 요인이 되는 부정적 전이인 간섭을 더 중시하는데, 간섭의 종류에는 언어 간 간섭과 언어 내 간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언어 간 간섭은 언어 간 범주의 차이와 구조, 규칙·의미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며, 종류에는 배제적(preclusive) 간섭과 침입적(intrusive) 간섭이 있다고 한다. 배제적 간섭은 모어에 없는 요소로 인하여 제2언어 학습 시 방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에 없는 관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하고, 침입적 간섭은 모어의 어떤 것이 제2언어 학습을 방해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SVO 어순인 영어 모어 화자가 SOV 어순인 한국어를 학습할 때 영어 어순의 간섭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언어 내 간섭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제2언어의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쳐서 새로 학습할 내용에 동일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국어의 동사 활용에 있어, 학습 초기에 과거형은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았’이 결합되는 것으로 학습한 학습자가, 이것을 적용하여 ‘가다’의 과거형을 ‘갔다’가 아닌 ‘가았다’로 말하는 것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언어 간 간섭과 언어 내 간섭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언어 간 간섭이 언어 내 간섭보다 더 크다는 연구가 대부분인데, 리차드(Richard 1974)에 의하면 언어 간 오류가 53%, 언어 내 오류가 31%정도라고 한다.

대조분석 가설의 입장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음 습득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한국어에서의 유음 실현 양상을 보면, 탄설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모음과 모음 사이의 어중 초성에 위치한 경우와 일부의 어두 초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유음 ‘ㄹ’은 고유어의 어두에는 나타나지 않고 외래어의 어두에서는 발화자에 따라 탄설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설측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음절의 종성에 위치한 거나 ‘별로’, ‘물론’에서처럼 종성의 ‘ㄹ’뒤에 이어진 초성 ‘ㄹ’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어에서의 유음은 탄설음으로만 실현된다. 따라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탄설음 자체의 발음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탄설음으로 실현되는 음성적 환경에 대하여 학습자가 알고 있지 않으면 모어의 요소가 제2언어 학습을 방해하는 침입적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설측음의 경우는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이므로 배제적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강현화 외(2002:11-12)에서는 외국어 학습 시 학습자 모어와 유사한 요소는 습득이 용이하고 학습자 모어와 차이가 있는 요소는 습득이 어렵다는 대조분석 가설이 항상 맞지는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학습자의 특성상 먼저 모어로 생각하고 제2언어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점과 성인학습자일수록 더 많은 모어의 간섭을 받으며 발음 체계에 있어서 더욱 심하게 모어의 간섭을 받는다는 점을 대조분석 가설의 효용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대로 대조분석 가설에 근거한 관점이 학습자의 제2언어 습득에서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대조분석학적 지식이 학습자의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습득 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해주고,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설명해주는 효용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유음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목록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 체계 습득 정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축된 대용량 음성 코퍼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음성 코퍼스(L2 Korean Speech Corpus)’에서 분석 대상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음성 코퍼스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 특성과 한국어 음운 체계를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이 가운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음 습득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단어를 각각 4개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²⁾.

2) 이 음성 코퍼스는 한국어와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발화를 녹음한 디지털 음성자료이다. 성별에 따라 남/녀, 한국어 학습 수준에 따라 초/중/고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녹음 내용은 한국어 무의미어, 어휘, 유형별 문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300개에 해당하는 어휘에서 어중 초성에 ‘ㄹ’이 있는 어휘와

〈표 1〉 분석 대상 목록

리(유음)	어중 초성	요리	너구리	나라	허리띠
	어말 종성	결단력	빨강다	멀다	달걀

2. 발화자 정보 및 녹음

실험에 사용된 발화자는 학습 수준별, 성별 균형을 이루고자 임의로 추출한 한국어 모어 화자³⁾와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일본어권 학습자 각각 6명으로 구성된 총 24명(여자)이다. 대상 발화자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음성코퍼스 녹음은 2004년 11월부터 2006년 2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녹음기인 TASCAM DA-20MKII, TASCAM DA-PI(샘플링 주파수 48kHz에 양자화 비트수 16bit)과 오디오 믹서 Behringer MXB1002, 헤드셋 마이크 Sennheiser HMD25-1, Shure SM10A를 사용하여 교육 기관 내의 방음실에서 실시되었다.

3. 측정 방법

한국어의 음성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한국어의 유음은 크게 분류하면 음절 초성에 위치할 때의 탄설음과 종성에서의 설측음으로 나눌 수 있다.

Kent 외(2002:179-183)에 의하면 유음은 제2포먼트와 제3포먼트가

유음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말 종성에 ‘리’이 있는 어휘를 임의로 4개씩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 3) 한국어 모어 화자는 3세에서 18세까지의 주 성장기가 서울, 경기 지역인 20대성인이다. 발화자의 연령은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각 언어권 학습자의 연령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 20대 초중반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다.

비교적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하지만, 설측음의 제3포먼트가 탄설음 포먼트 보다 높게 실현되어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신지영(2014:250-251)에서는 초성에서 실현된 탄설음의 길이가 종성에서의 설측음 길이에 비해 아주 짧고, 모음 사이에서 초성으로 실현된 탄설음의 경우 음향 에너지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짧은 흰 공간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프라트(Praat)을 사용하여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관찰함으로써 음절의 종성과 어중 음절 초성 ‘ㄹ’의 포먼트와 지속시간, 후행 음절의 초성 ‘ㄹ’의 폐쇄 구간의 유무를 측정하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종성과 어중 초성 ‘ㄹ’의 포먼트와 지속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음절 종성에서 실현된 ‘ㄹ’의 제2포먼트 경우만 검정통계량 값이 5.425 이고 유의 확률이 0.014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음절 종성의 ‘ㄹ’의 제2포먼트가 한국어 모어화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고급, 중급, 초급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ukey의 HSD에 의한 사후 분석의 결과 한국어 모어화자와 중급 일본인 학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습득이 안 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2〉 일본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의
어중 초성과 종성 ‘ㄹ’의 음성학적 특징 비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어중 초성 ‘ㄹ’ 시간	집단-간	0.00	3	0.00	0.062	0.61
	집단-내	0.03	12	0.00		
	전체	0.03	15			
어중 초성 ‘ㄹ’ F1	집단-간	86465.59	3	28821.86	1.327	0.31
	집단-내	260606.07	12	21717.17		
	전체	347071.70	15			
어중 초성 ‘ㄹ’ F2	집단-간	48488.06	3	16162.69	0.073	0.97
	집단-내	2646803.00	12	220566.90		
	전체	2695291.00	15			
어중 초성 ‘ㄹ’ F3	집단-간	68854.29	3	22951.43	0.697	0.57
	집단-내	395126.30	12	32927.19		
	전체	463980.60	15			
어말 종성 ‘ㄹ’ 시간	집단-간	0.01	3	0.00	2.490	0.11
	집단-내	0.01	12	0.00		
	전체	0.01	15			
어말 종성 ‘ㄹ’ F1	집단-간	4680.16	3	1560.05	0.566	0.65
	집단-내	33059.15	12	2754.93		
	전체	37739.31	15			
어말 종성 ‘ㄹ’ F2	집단-간	419795.10	3	139931.70	5.425	0.01
	집단-내	309545.20	12	25795.43		
	전체	729340.30	15			
어말 종성 ‘ㄹ’ F3	집단-간	55078.96	3	18359.65	3.146	0.07
	집단-내	70032.92	12	5836.08		
	전체	125111.90	15			

이어서 구체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의 음성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어중 음절의 초성 ‘ㄹ’의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급에

그림 1 어중 초성 ‘ㄹ’의 전체 지속 시간(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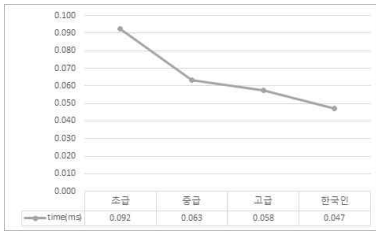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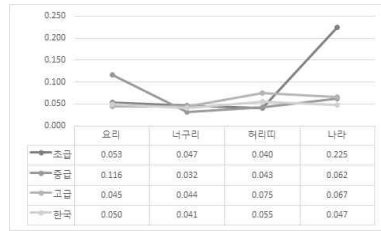


그림 2 어중 초성 ‘ㄹ’의 단어별 지속 시간(ms)



서 고급으로 갈수록 한국어 모어화자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의 경우 고급 학습자에서 초급 학습자로 갈수록 모음 사이에서 초성으로 실현될 때 관찰되는 음향 에너지가 거의 없는 흰 공간이 나타나지 않게 발음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중 음절 초성 ‘ㄹ’의 제1포먼트는 전체적으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한국어 모어화자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리’의 ‘ㄹ’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와 차이를 보이는데, 제1포먼트는

그림 3 어중 음절 초성 ‘ㄹ’의 전체 제1포먼트(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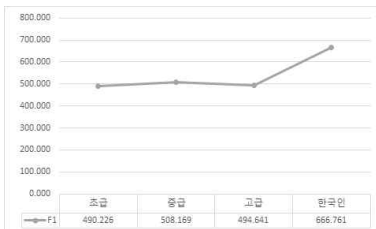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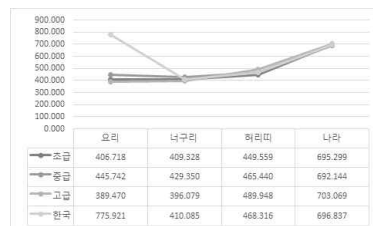


그림 4 어중 음절 초성 ‘ㄹ’의 단어별 제1포먼트(Hz)



개구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

보다 입을 적게 벌려 발화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중 음절의 초성 ‘ㄹ’의 제2포먼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한국어 모어화자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 어중 음절 초성 ‘ㄹ’의 전체 제2포먼트(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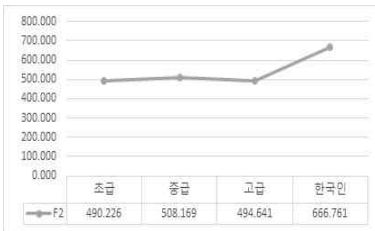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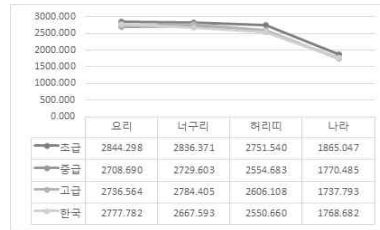


그림 6 어중 음절 초성 ‘ㄹ’의 단어별 제2포먼트(Hz)



어중 음절의 초성 ‘ㄹ’의 제3포먼트도 전체적으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한국어 모어화자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7 어중 음절 초성 ‘ㄹ’의 전체 제3포먼트(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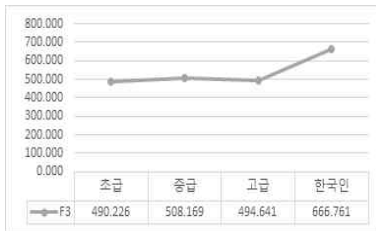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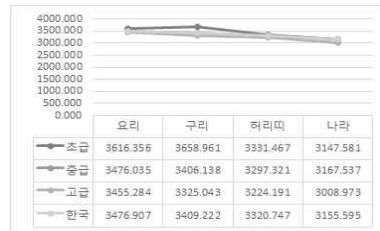


그림 8 어중 음절 초성 ‘ㄹ’의 단어별 제3포먼트(Hz)



어중 음절의 초성 ‘ㄹ’은 일본어에 존재하는 발음으로, 초급학습자로 갈수록 ‘나라, 허리띠, 요리’의 ‘ㄹ’을 탄설음으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보이

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습득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어서 음절의 종성 ‘ㄹ’의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한국어 모어화자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음절 종성 ‘ㄹ’의 전체 지속 시간(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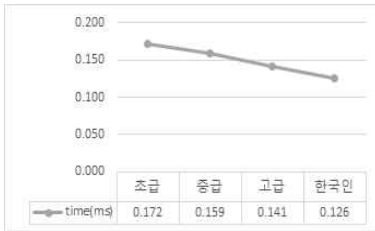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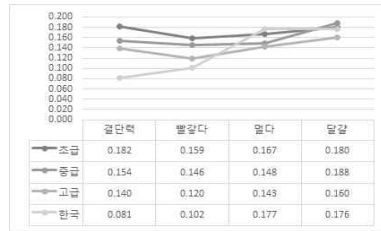


그림 10 음절 종성 ‘ㄹ’의 단어별 지속 시간(ms)



음절 종성 ‘ㄹ’의 제1포먼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급 학습자가 U자형으로 한국어 모어화자가 가장 차이가 나는 발달 곡선을 보이고 있다. ‘빨갰다’의 ‘ㄹ’의 경우 한국어 모어화자보다 일본인 학습자가 입을 적게 벌려 발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1 음절 종성 ‘ㄹ’의 전체 제1포먼트(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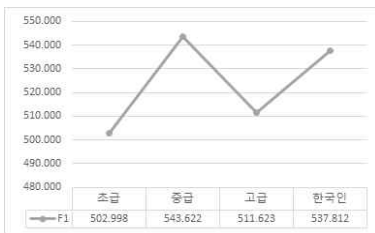


그림 12 음절 종성 ‘ㄹ’의 단어별 제1포먼트(Hz)



음절의 종성 ‘ㄹ’의 제2포먼트를 살펴보면 약간 중급 학습자가 초급 학

습자보다 낮은 발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 모어화자가 일본어 모어 화자보다 전설 쪽에서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3 음절 종성 ‘ㄹ’의 전체 제2포먼트(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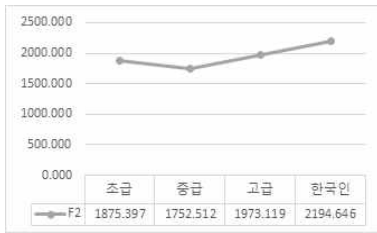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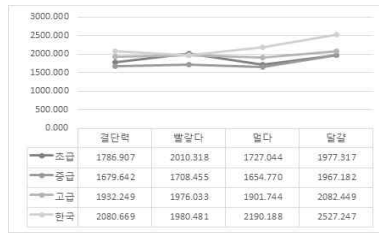


그림 14 음절 종성 ‘ㄹ’의 단어별 제2포먼트(Hz)



선행 음절의 종성 ‘ㄹ’의 제3포먼트의 경우 초급 학습자가 상당히 높은 반면 중급과 고급 학습자는 상당히 낮아서 전체적으로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의 관련성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그림 15 음절 종성 ‘ㄹ’의 전체 제3포먼트(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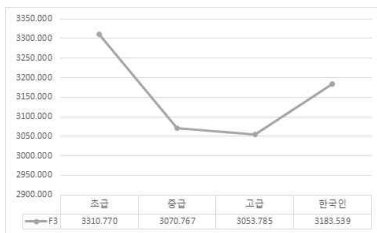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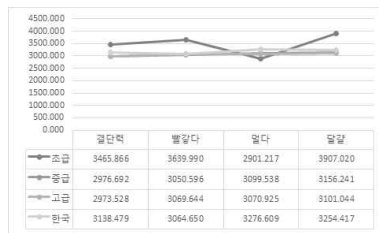


그림 16 음절 종성 ‘ㄹ’의 단어별 제3포먼트(Hz)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탄설음으로 실현되는 어 중 초성의 ‘ㄹ’과 설측음으로 실현되는 음절의 종성 ‘ㄹ’의 음성적인 특징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설측음으로 실현된 음절 종성의 ‘ㄹ’의 제2포먼트 경우만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제3포먼트 경우는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유의 확률이 0.065로 근접하게 나왔다. 이를 통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유음의 습득에 있어서 일본어에 있는 탄설음의 습득보다는 일본어에 없는 음절 종성에 위치하는 설측음의 습득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대조분석학적 관점에서 일본인 학습자의 모어에 있는 탄설음이 한국어 유음의 습득을 방해하는 침입적 간섭보다는 일본인 학습자의 모어에 존재하지 않는 설측음이 한국어 유음의 습득을 방해하는 배제적 간섭이 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탄설음의 습득보다 설측음의 습득이 어려운 이유로 일본어의 음운 현상도 들 수 있다. 정현숙(2014:14)에 의하면 일본어의 음소 체계에 ‘ㄴ’은 후행하는 자음이 [p], [b], [m]이면 [m]으로, [t], [d], [n], [z], [s], [r]이면 [n]으로, [k], [g]이면 [ŋ]으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일본어에는 한국어에서 선행 음절에서 종성과 같은 기능을 하는 특수 모리가 후행 음절 초성의 영향에 의해 역행적 위치 동화를 일으켜 후행 초성과 동일한 조음 위치를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만일 후행 음절 초성이 탄설음이면 선행 음절 종성이 치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구체적인 음향음성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어중 초성 ‘ㄹ’와 음절 종성 ‘ㄹ’의 전체 지속 시간에 있어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한국어 모어화자와 가깝게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어중 음절 초성 ‘ㄹ’의 제1포먼트, 제2포먼트, 제3포먼트는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초급보다 중급에서 모어화자와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음절 종성 ‘ㄹ’의 경우는 고급학습자가 제1포먼트에서 한국어 모어화자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고, 제2포먼트에서는 중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보다

는 근소하지만 한국어 모어화자와 차이를 보였고, 제3포먼트에서는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면서 한국어 모어화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이중복 외(2014:57-58)에서의 제2언어 학습자의 중간언어가 초급에서 중급, 고급으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언어를 습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언어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간언어 체계를 수정해간다는 것과 유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학습 초기의 WH 의문문은 전형적으로 도치되지 않지만, 학습자가 주어 도치규칙을 WH 의문문의 일부 동사와 WH 대명사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다가 점차 그 규칙을 확장하면서 더 많은 동사와 다른 WH 대명사에도 적용해 가는 현상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의 지속적인 수정과 확장의 진행과정은 중간언어 고유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역동적인 중간언어의 내재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음의 습득 과정에서도 음향음성학적인 특징 가운데 목표 언어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숙달도별로 일정한 패턴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어화자에 근접해 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확성 감소 현상이 나타날 때 교수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시사한다. 이때 학습자의 언어 발달이 퇴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수용하면서 내재화하는 과정이라고 파악하여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본고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생성하는 유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음 습득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탄설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탄설음으로만 실현되는 유음을 대상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 모어의 요소가 목표 언어의 습득을 방해하는 침입적 간섭보다는 학습자의 모어에 없는 요소가 목표 언어의 습득을 방해하는 배제적 간섭이 더 발생하여 탄설음보다는 설측음의 습득을 더 어려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종성에서 실현되는 유음을 지도할 때는 일본어의 특수모라에 해당하는 한국어 종성 자리에 일본어에서의 역행적 위치 동화가 적용되지 않는 환경과 혀끝이 구강의 중앙 부분을 막아 공기가 혀의 양 옆으로 흐르도록 하는 설측음의 발음 방법을 명시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음 습득 과정에 나타난 중간언어가 숙달도에 따른 단계적인 발달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수정해가며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수자에게 학습자 목표 언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학습의 저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유음이 놓인 환경에 따른 음성적 차이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으나 차후의 과제로 어중 초성 ‘ㄹ’ 뒤에 오는 모음과 음절 종성 ‘ㄹ’ 앞에 오는 모음에 따른 유음의 음성적 특징에 대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이 쌓여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적합한 효과적인 한국어 발음 교수·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 외, 『대조분석론:한국어 스페인어 문형 대조를 바탕으로』, 역락, 2002, pp.4-12.
- 박창원, 『한·영·일 음운대비』, 한국문화사, 2004, p.82.
- 신지영,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4, pp.250-252.
- 오대환,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나고야 상과대학의 예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8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3, pp.111-114.
- 이진호, 『국어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2014, pp.62-63.
- 이화진·하호빈,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韻 規則 適用에 대한 縱的研究-子音의 음韻 規則을 中心으로-」, 『어문연구』 제47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pp.411-430.
- 이효숙, 「일본인의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육」, 『교육문화연구』 제14집,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pp.179-213.
- 정현숙, 「초급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 발음 오류연구:오류 환경 및 철자 오류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2014, pp.1-69.
- 하세가와유키코, 「일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지도법 : 입문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8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7, pp.161-178.
- Ray D. Kent and Charles Read, The acoustic analysis of speech, Delmar, 2002, pp.179-183.
- Ellis, Rod,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이종복 외 옮김, 『제2언어 습득의 이해』, 경문사, 2014, pp.57-58).

Abstract

An Acoustic Study in the Japa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s Acquisition of Liquid

Kim, Joo-young

This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mpare the acoustic and phonetic characteristics of liquids pronounced by Japanese Korean learners with Korean speakers, and to analyze the liquid acquisition of the Japanese Korean learners.

From a contrasting linguistic point of view, the liquid in Japanese is realized only as a flap, so intrusive interference in which something in the native language interferes with the learning of the second language or lateral that does not exist in the Japanese language is a preclusive to that which occurs when learning in the second language because of factors not in the native language. The possibility of interference could be predicted.

As a result, it can be assumed that the Japanese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encounter more difficulty in acquiring the lateral than Japanese, than acquiring flaps in Japanese.

Thus, when teaching the lateral,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teach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retrograde position assimilation in Japanese and the lateral pronunciation method are not applied to the Korean species corresponding to the special Mora in Japanese.

Key Word : liquid, Japanese learners of Korean,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preclusive interference, intrusive interference

김주연

소속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우편 : saranate@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05월 5일 투고되어
2020년 0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6월 16일 게재 확정됨.

